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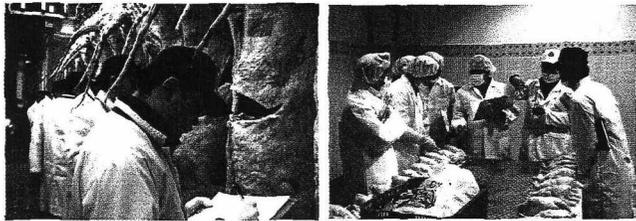
돼지고기 등급판정제도 개선 워크숍

축산물등급판정소는 한·EU FTA 타결로 돼지고기 수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돼지고기 등급판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지난 10월 26일~27일에 '돼지고기 등급판정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17개의 등급을 7개 등급으로 단순화하여 정부에 건의되며 이후 시행규칙, 전산화 작업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7월쯤 반영될 계획이다.

축산물등급판정사 직무교육 실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판정기술 향상과 이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2009 축산물등급판정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문강사 교육은 소(농협 서울, 10.14)·돼지(도드람 LPC, 10.15~16)·닭고기(농협목우촌, 10.19~20)·계란(풍림푸드, 10.22~23)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체교육은 지역본부별로 10~1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2009년 4분기 노사발전위원회 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노사관계의 합리적 관리와 새로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기관의 발전방향 모색 및 노사화합을 통한 조직가치 향상과 생산성 제고로 고객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난 10월 29일~30일 2일간 노사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학습동아리 방문

지난 10월 30일 국립농산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학습동아리 회원이 축산물등급판정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쇠고기 이력제 연구모임'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기관별 역할과 기능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있었으며, 이날 정진형 팀장(이력관리팀)의 쇠고기 이력제 개요 및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쇠고기 이력제 추진현황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고기 이력제 개요 및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쇠고기 이력제 추진현황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